

신라정신의 소설적 수용과 낭만적인 전(前)근대의 서사

김동리의 『신라편』에 대하여

The novelistic acceptance of Silla-spirits and the epic style of romantic pre-modernity

저자 (Authors)	송희복 Song, Huibog
출처 (Source)	국제언어문학 ,(30), 2014.10, 293-315(23 pages)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30), 2014.10, 293-315(23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제언어문학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59401
APA Style	송희복 (2014). 신라정신의 소설적 수용과 낭만적인 전(前)근대의 서사. 국제언어문학(30), 293-31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0 15:3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정신의 소설적 수용과 낭만적인 전(前)근대의 서사*

김동리의 『신라편』에 대하여

송희복**

|| 차례 ||

1. 서언(緒言) : 신라정신의 문학사적인 의미
2.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 : 토착신(양)의 섬김과 남녀의 연애담
3. 김동리의 역사 로망스, 그 극점에 도달한 인간상 수로부인
4. 감통(感通), 본래 역사, 그리고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
5. 맺는 말, 또한 몇 가지의 남는 말

[국문초록]

문학 작품 속의 신라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건 바로 김동리의 『신라편(新羅編)』(1977)이다. 여기에 살려 있는 김동리의 거의 모든 소설은 로망스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김동리의 역사소설인 이른바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 중에서 작품성이 뛰어난 것 중의 하나는 「원화(源花)」이다. 김동리의 『신라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를 꼽을 수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수로부인’이 아닌가 한다. 김동리의 「원왕생가」는 본디 1955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그의 『신라편』에 실려 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비교적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동리가 그린 기과량은 작자의 상상력에 의해 본래의 역사를 뒤틀어버려 창안된 허구적인 인격의 소산이다. 이를테면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인 것이다. 김동리의 『신라편』은 일종의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이다.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은 김범부의 『화랑외사』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김동리가 그의 형이 이루어놓은 메타역사를 보충하고 보완한 유사적(遺事的)인 성격의 초(超)메타역사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hbsong@cue.ac.kr

주제어 : 김동리, 신라편, 신라정신, 역사소설,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 본래 역사, 로망스

1. 서언(緒言) : 신라정신의 문학사적인 의미

신라정신이란 것이 한때 문단과 비평계의 첨예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이 용어는 1960년대에 주로 논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젊은 학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비평적인 성찰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첨예한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아이টে은 정확히 언제부터 비롯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보아 서정주가 195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서정주가 제안한 개념 틀인 신라정신의 싹은 6.25가 발발되기 직전에 발표된 시편 「선덕여왕찬(善德女王讚)」에서 이미 트고 있었다. 좌우 대립으로 분열된 해방 조선이 향후 통일되어야 할 당위성은 신라의 삼국통일로 대입되는 역사적 현재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주는 정치적인 난세에 살아가고 있는 시인으로서 선덕여왕을 찬미해마지 않았던 것. 이러한 생각은 6.25를 거쳐 더욱 확고해진다.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선덕여왕의 치세를 두고-마치 루카치가 옛 그리스를 ‘선험적 고향’이라고 했던 것처럼-그는 경험 이전의 고향으로 보았던 것이다.

서정주의 신라정신은 교수 자격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일종의 소논문인 『신라연구』(1960)와 자신의 네 번째 시집인 『신라초(新羅抄)』(1960)에 이르러 한껏 고양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신라정신의 논쟁도 점화된다. 찬반의 대비점이 가장 뚜렷이 발견되는 것은 문덕수의 「신라정신에 있어서의 영원성과 현실성」(현대문학, 1963, 4.)과 김윤식의 「역사의 예술화-신라정신이란 괴물을 폭로한다」(현대문학, 1963, 10.)이다.

문덕수의 글은 신라정신에 현실주의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서정주 시 세계에서 현실은 다름 아니라 영원주의 이데아를 표현하기 위한 계기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김윤식의 글은 도발적인 서브 타이틀이 말해주듯이, 근대성을 서구추종주의의 결과로 보면서 한국적인 것, 동양적

인 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피장파장의 식민지 근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반(反)근대성의 시학이 신라정신으로 이름된 민족주의로 포장되는 것은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말하자면, 신라정신은 1960년대의 문학 담론으로는 동시대에 창작과 비평의 이슈로 비교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적어도 모더니티와 전통, 참여와 순수, 현실주의와 영원주의 등으로 날과 씨로 짜여 긴장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말이다.

어쨌든 문학 작품 중에서 신라정신을 가장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서정주의 시집 『신라초』였다.¹⁾ 이에 비해 좀 뒤늦게 나온 것으로 문학 작품 속의 신라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건 바로 김동리의 『신라편(新羅編)』(1977)이다. 이 작품(집)에 실려 있는 낱낱의 것은 195, 60년대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어서 비평적인 재조명이 요망되는 것이기도 하다.

신라의 고도인 경주가 고향인 김동리는 신라형 소재주의의 역사소설을 써서 책으로 묶어냈다. 책의 제목이 『김동리의 역사소설』이니까, 사실상 제목은 없는 거와 다를 바 없었다. 부제에 해당하는 ‘신라편’이 아닌 게 아니라 표제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동리 역사소설의 표제를 ‘신라편’으로 잠정적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다면, 일단 서정주의 네 번째 시집 제목인 ‘신라초’와 잘 어울린다고 하겠다. 키워드에 해당하는 ‘신라’에다 접미사처럼 따라붙은 초(抄)와 편(編)은 선택적인 편집의 개념으로 사용된 공통점이 있다. 김동리는 1977년에 지소림출판사에서 간행한 『김동리의 역사소설』의 자서(自序) 부분에 이 책을 공간하는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1) 시집 『신라초』는 1960년에 상재됐던 서정주의 네 번째 시집이다. 여기에 실려 있는 38편의 시는 1950년대 전후(戰後)의 시대 상황 속에서 쓰인 것들이다. 이 38편의 시 중에서 신라를 직접적으로 제재화한 것은 8편뿐이다. 이 가운데서도 「선덕여왕의 말씀」과 「꽃밭의 독백」과 「사소(娑蘇) 두 번째의 편지 단편」과 「노인 헌화가」는 비평가들의 끊임없는 관심사로 논의되어 왔고, 반면에 「신라의 상품」과 「구름다리」와 「백결가」와 「해」는 철저하게도 비평으로부터 외면되어 왔다.

이 책에 수록된 열여섯 편은, 전체적으로, 신라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과 의지와 지혜와 이상과, 그리고 그 사랑, 그 죽음의 현장을 찾아보려는 나의 종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완전히 동일한 기조의 작품들이다. 그것을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신라혼의 탐구’랄까, ‘신라혼의 재현’이랄까, 그런 성질일 것이다.²⁾

이른바 김동리의 『신라편』은 이처럼 규모가 작은 단편적인 에피소드 열여섯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작가의 창작적인 근본 동기, 의미의 요체는 신라혼의 탐구와 재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말한 신라정신과 차이가 별로 없는 개념이 된다. 그가 자서의 말미에는 ‘이 책을, 나의 사랑, 나의 꿈의 요람인 신라의 모토(母土) 경주에 바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신라정신에는 서정주에게 없는 고향에 대한 본능적이면서도 헌신적인 애정이 부가되어 있다.

김동리의 『신라편』은 24년만에 복간되기도 했다. 2001년에 출판사 청동거울에서 문홍술·박덕규 역임으로 공간된 『소설 신라열전』이 바로 그것이다.³⁾ 문학평론가인 두 사람은 김동리의 『신라편』을 대중화하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비평가로서의 텍스트 정본 작업의 재조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면이 없지 않았던 작업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박덕규와 문홍술이 새로 복간한 소설의 권두 해설과 권말 해설을 각각 쓴 것 역시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고 하겠다.

2.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 : 토착신(앙)의 섬김과 남녀의 연애담

열여섯 편의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것이 김동리의 역사소설 『신라

2) 김동리, 『김동리 역사소설 신라편』, 도서출판 지소립, 1977, 자서.

3) 제목에 열전(列傳)이 드러난 경우가 온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김동리의 신라형 소재의 역사소설이 전통적인 역사서술에 있어서 열전의 형식으로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야기의 기원을 삼국사기의 열전에 둔 것은 16편 중에서 2편에 지나지 않는다.

편』이다. 『소설 신라열전』에 이르면 그 이야기들은 시대 순으로 재배열된다. 역사의 형식을 갖춘 셈이 된다. 이것의 이야기 구성은 신라 건국 초기의 국가적인 공훈과 관련된 삽화들인 「회소곡」과 「석탈해」와 「눌지 왕자」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이 세 편의 애깃거리는 고대의 서사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우선 이 이야기들은 소위 ‘영웅의 일대기’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무훈담이다. 그 이후의 에피소드들과는 이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머리에 놓이는 「회소곡(會蘇曲)」은 노래의 이름이다. 음력 8월 15일에 길쌈 경쟁에서 진 여인네가 이긴 쪽을 위해 음식을 차려 사례하며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진 쪽의 여인들 중의 한 사람이 ‘회소, 회소’ 하는 탄사의 노래를 불렀다.⁴⁾ 그 소리가 슬프고도 청아하여 후세 사람들이 회소곡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런데 김동리는 이 회소라는 말뜻의 기원을 사람 이름으로 보았다. 무슨 역사의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작가의 민감한 상상력이 뻗친 까닭이다.

회소는 평범한 백성이다. 가난한 삶 속에서 효성이 극한 처녀 나미와 혼인을 했지만 늙은 장인의 잘못된 부역을 대신하다가 왜적의 침공에 죽임을 당한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는 애국 청년이다. 동해변에서 축성의 일에 동원되어 나랏일을 봉사다가 뜻하지 않은 왜적의 침입을 받아 용감히 싸우던 과정에서 전사했다. 이때부터 새댁인 나미는 밤낮으로 회소의 이름을 부르며 비탄에 빠져 있다. 작가는 고대 서사시의 성격을 충분히 갖춘 애깃거리로 재구성한 것이다. 소설 구성상의 발단 과정에서 소설 미학의 근대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도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큰 미덕과 장처이기도 하다.

나미는 북을 놓고 한쪽 손으로 바디를 잡은 채 멍하니 뜰을 내다보고 있었다. 뜰 앞 우물가에는 석류꽃이 빨갭게 피어 있고, 그 곁의 감나무에서는 이따금씩 토드락토드락 하고 풋감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토드락토드락 하는 소리가 뜰을 지나서 그녀의 귀에까지 똑똑히 들리리만큼 조그만 집안엔 숨막힐 듯한 한낮의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숨막힐 듯한 한낮의 고요를 깨뜨리거나 하는 듯이 장

4) 회소라는 탄사는 ‘아서라, 말아라’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모이소(모이소서)’라는 이두식 표현도 생각해 봄직하다.

독대 곁에서 수탉이 한바탕 날개를 치며 울었다. 고르르 하는 닭 울음소리가 마저 사라지면서 이내 뜰에는 또다시 짹한 햇빛과 함께 숨막힐 듯한 고요가 밀려 들었다.⁵⁾

이 묘사는 김동리 특유의 세련된 정경 묘사이다. 이 경우는 시적인 묘사이기도 하다. 시인이기도 했던 그이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회소곡」 말미에 나미가 부르는 노래 ‘회소곡’ 4절을 그 나름대로 복원한 것도 이 작품의 시적인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 ‘회소곡’을 불렀다는 그 아득한 옛날에 음력 8월 15일은 ‘가배(嘉俳)’라는 이름의 축제였다. 오늘날 한가위 축제의 기원이다. 그때 행해졌던 음주가무는 원시종합예술인 발라드ダンス의 잔영이다. 노래 ‘회소곡’도 그 일부이다.

석탈해와 놀지 역시 회소처럼 고대의 영웅이었다. 소설적인 허구의 장치에 의해 재구성된 것에 의하면, 석탈해는 본디 가야 사람이었으나 시조 박혁거세의 영역을 다지고 신궁을 창건하는 일을 지휘하는 도감(都監)이었다가 낙랑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서라벌의 영웅이었다. 공주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왕위를 평화적으로 이양 받기 이전의 이름은 새뚝이었다. 이에 비해, 놀지는 『신라편』의 중요한 모티프인 권력쟁투의 과정에서 살아남아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한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는 사촌 형인 실성왕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외세의 힘을 이용해 부왕의 왕권을 대를 걸러 계승한다. 김동리의 『신라편』에 실려 있는 「석탈해」와 「놀지 왕자」의 이야기는 이처럼 고대 서사시에서 볼 수 있는 무훈담과 유사하다.

이 두 편의 이야기 중에서도 「석탈해」는 고대의 제식(祭式, ritual)과 깊이 상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새뚝이 도감으로서 예복을 입고 제식을 주재하자 나라의 토목공사에 참가한 석수, 목공, 미장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토착신인 한배님을 기린다. 한배님은 시조 박혁거세이다. 사람들은 또 이를 가리켜 ‘검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⁶⁾ 새

5) 김동리, 앞의 책, 8면.

6) 최초의 신궁. 신사는 박혁거세를 모시던 곳이었다. 이것이 고대의 일본에 영향을 끼쳐 일본의 토착신앙인 신도(神道, shintoism)로 형성된다. 검님은 일본의 경우에 ‘가

뚝의 부인, 즉 석탈해의 왕비가 될 아효 공주는 검님을 모시며 숭배하는 여신관(女神官)이다. 여무(女巫)니 여사제라고 표현해도 관계없다.

궁중에 있는 신단(神壇)을 보이오려 후원으로 돌아갔을 때 마침 그 아무도 없는 고요한 단 위에 어린 아가씨 하나가 엎드려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아가씨는 입으로 연방 무슨 주문을 외우며 몇 번이고 일어나 춤을 추고는 도로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주문을 외우곤 하는 것이다.⁷⁾

이 신비의 어린 아가씨가 여사제 아효 공주이다. 새뚝과 아효 공주의 첫 만남은 박혁거세의 성역인 신단에서 이루어진다. 이 만남은 검님께서 점지한 것 이란다. 또 두 사람이 부부의 인연이 맺어지고 신라의 왕과 왕비가 되는 것도 검님의 감응(력)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석탈해」 이야기는 고대의 제식, 즉 신라인의 토착신앙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사시의 성격 및 서사시적 세계관을 전형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루카치에 따르면, 서사시적 세계관의 내적 안정성은 모험을 배제하는 데 있다. 새뚝과 아효 공주의 만남은 인간의 모험이 아니라 신의 뜻이다. 이에 비해 소설은 모험의 형식이다. 소설의 내용이란, 다름 아니라 자신을 알기 위해 길을 나서는, 또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모험을 찾아나서는 영혼의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신에게 버림받은 세계의 서사시이며, 소설 주인공의 심리 상태는 어쩔 수 없이 마성적이다.⁸⁾ 서사시와 소설의 역사철학적 위치는 이처럼 상반되어 있다. 양자 사이에 과도기적인 서사 양식이 존재한다면, 그건 바로 로망스(Romance)이다. 고대의 제식과 관련된 문학 양식인 서사시에 자아와 세계의 내적 안정성이 부여된 총체성이 있었다면, 로망스에선 균열의 조짐을 보이다가, 소설에 이르러선 총체성은 온전히 파편화되고 만다. 타락한 근대, 훼손된 근대 때문이다.

김동리의 거의 모든 소설은 로망스⁹⁾적인 특성을 지닌다.

미사마'로 불리어진다.

7) 김동리, 앞의 책, 295-6면.

8) 게오르크 루카치,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2012, 102~3면, 참고.

로망스적인 특성이란, 비현실적인 환상의 이야기, 신비하고도 초자연적인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특성의 소설에는 히스클리프처럼 불가사의(mysterious)한 캐릭터와, ‘폭풍의 언덕’처럼 몰역사적인 세팅이 있게 마련이다.

그의 소설은 역사철학적인 위상에서 비추어볼 때 전(前)근대성의 서사 양식이다. 그가 비록 호메로스적인 운문의 세계로 회귀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만큼 시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서 타락한 근대, 훼손된 근대는 해방을 전후로 우리의 역사를 압박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좌경화된 역사유물론이다. 그의 소설이 시적인 특성을 지닌 것이라면, 그 극점에 「등신불」과 같은 반전(反戰)과 평화의 이념이 놓인다.

김동리의 『신라편』에 실려 있는 모든 에피소드는 로망스적인 시적 특성을 드러낸 역사소설이다. 「회소곡」과 「석탈해」와 「눌지 왕자」 등과 같은 서사시적 운문의 세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상에 있어 로망스적이다. 특히 나는 이 대목에서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라는 좀 창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¹⁰⁾ 즉 서사시와 로망스의 중간적 성격이랄 수 있다. 서사시가 국가적인 주제를 다룬다면, 로망스는 개인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자아와 세계의 틈새에는 균열의 조짐이 있다.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재자가인(才子佳人)의 이루어지지 못한, 혹은 결여된 사랑이 있다.

김동리의 역사소설인 이른바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 중에서 작품성이 뛰어난 것 중의 하나는 「원화(源花)」이다. 원화는 토착신을 직접 모시는 신녀(信女)이다. 신전에 모신 검님은 미인에 더 감응하신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미모와 가무가 빼어난 원화를 선발한다. 원화는 나라의 젊은이와 두루 사귀어

9) 여기에서 로망스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로망스는 서사시와 근대소설의 사이에 존재했던 서사문학의 일종인 동시에 허구적인 산문(prose fiction)의 네 가지 지속적인 형식, 즉 노블, 로맨스(로망스), 해부, 고백 중의 하나이다.

10) 문학평론가 문홍술은 『소설 신라열전』의 해설에서 김동리의 『신라편』에 실려 있는 16편의 소설을 두고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합일된 세계를 소설화한 설화소설’(310면)이라고 규정하였다. 서사의 장르적 성격에 있어서 소설에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이 필자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그들의 인품과 무예와 풍류를 헤아려 나라의 인재를 발탁해 나라님께 추천하는 임무를 가진다. 원화를 선발하기에 앞서 후보자 처녀들은 ‘(검님하) 꽃을 피워 주소서.’라고 발원한다. 이 말은 일종의 제의적인 상징 언어이다.¹¹⁾ 여기에서 말하는 ‘꽃이 피다’라는 것은 다의성(polysemy)을 가진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사랑의 감정이 솟구치다, 자기 힘 이상의 것이 되다, 신령이 지피다, 검님과 감응하다 등등에 해당한다. 『삼국사기』 진흥왕조에 의하면, 남모와 준정이라는 이름의 원화를 뽑았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용모와 무예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청년인 세마루와 삼각관계를 맺었다. 남모를 선택한 세마루와, 사랑의 패배자가 된 준정 간에 있었던 갈등 관계를 살펴보자.

“준정랑, 그녀의 말대로 나는 일찍부터 그녀와 친히 놀았고 또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남모랑을 한번 보고 그녀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된 뒤로는 남모랑이 더 내 마음을 끄우고, 그녀 앞에서만 얼마든지 꽃이 피는 걸 어떡하오?”

“세마루님 임자는 작년 가윗날 밤에 이 몸과 함께 흥륜사에 갔을 때 탑 아래서 이 몸의 손목을 잡으며 이 몸에게 한 말을 벌써 잊었던 말이오.”

(……)

“준정랑, 나는 그녀 앞에 내가 그녀의 지아비 되겠다고 맹세한 일은 없지 않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 몸을 깊이 다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지.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렇지만 나는 임자를 모랑에게 빼앗기곤 살 수 없는 걸 어떡하오?”

(……)

세마루는 이렇게 말하자 칼을 빼어서 공중에 세 번 버힌 뒤, 칼을 도루 자루에 꽂은 뒤 그 곳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준정이 자기에 미련을 끊어 달라는 뜻인 동시에 자기와 준정 사이도 그와 같이 끊어버리자는 뜻이었나 보아요.¹²⁾

세마루가 세 차례 걸쳐 허공중에 칼질한 행위는 결단을 나타내는 일종의

11) 「구지가」에서 ‘(거북하) 마리를 내게 하소서’ 라고 기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2) 김동리, 앞의 책, 189-90면.

상징 몸짓이다. 이 역시 제의적이다. 신화적인 축제의 순간에 꽃을 피우듯이 춤을 추는 듯한 변형된 제식무(祭式舞, ceremonial dance)다. (김범부가 『화랑외사』에서 물계자의 무용담을 두고 ‘싸우기보다는 긴 칼로써 학처럼 춤을 추다’라고 묘사한 부분이 있다. 이 역시 제식무의 성격이 강하다.) ‘제식적인 칼춤’은 제사적인 기원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¹³⁾

세마루의 ‘제식적인 칼춤’에도 불구하고, 준정의 질투는 강렬했다. 그녀는 남모를 유인하여 술에 취하게 한 후에 삼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 그녀의 교살은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녀는 세마루에게 더욱 꽃 피기를 건넬까 빈다는 유언을 남기고 죄를 인정하며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 살인 사건 이후에 나라에서는 원화 제도를 과해 버렸다. 그 대안으로 생겨난 제도가 잘 알려진 대로 바로 화랑 제도인 것이다.¹⁴⁾

3. 김동리의 역사 로망스, 그 극점에 도달한 인간상 수로부인

김동리의 『신라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를 꼽을 수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수로부인」이 아닌가 한다. 신라는 상고적부터 미모가 있는 여인을 우러러보는 풍습이 있었다. 검님이 미녀의 치성에 잘 응감하기 때문이다. 신라의 토착신앙에서는 검님을 신명(神明)이라고 한다. 이 신명에 음감되는 걸 가리켜 신명에 지피다, 혹은 신령에 들리다, 라고 말해진다. 성덕왕 때의 최고 미인은 수로랑이었다. 그녀는 이미 열세 살 때 나을신궁(奈乙神宮)의 여제관이 되었다. 무녀가 신에 들리는 것처럼 수로랑이 원시종교의 엑스터시 체험에 사로잡히는 것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13) J. 웨스턴, 정덕애 역,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 문학과지성사, 1988, 109면, 참고.

14) 원화와 화랑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토착신과의 감응력과 상관이 있는 전통 때문에 외모지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독자적인 의미의 화랑(花郎)은 시냇말로 ‘꽃미남’에 해당한다.

하루는 신궁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잠결 속에서 홀연히 어디서 피리 소리가 들려 왔다고 합니다. 그 피리 소리는 쉬지 않고 그녀의 귓속으로 곧장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슬픈 가락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다. 나의 목소리다. 나의 소리다. 아니, 검님의 목소리다! 검님이 부르시는 소리다!”

이렇게 그녀는 잠결 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느꼈을 뿐이요, 과연 그 소리를 입 밖으로 내 부르짖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좀처럼 잠을 깨고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피리 소리가 가위가 눌리듯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 채 그녀는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춤이 취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곁에서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분명히 자기는 잠결에서 어깨를 꿈틀거리기만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작가 김동리는 수로랑의 종교 체험을 이와 같이 잘 묘사하고 있다. 마치 「무녀도」에서 모화의 신명에 이끌리는 과정을 다시 재현하는 것 같다. 제식은 일종의 마력(魔力)을 수반한다. 이는 초자연적인 힘에 감응되어가는 입문의 과정이다. 신비한 피리 소리에 이끌린 수로랑은 미목이 수려한 소년인 화랑 응신을 만난다. 화랑의 어원은 시냇말인 꽃미남과 상응하는 개념이다. 재자가 인인 응신랑과 수로랑의 로맨스는 충족되지 아니한 사랑의 전형적인 스토리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간다면 내 피리, 낭자의 가무는 다 함께 꽃피우기 어려울 게요, 이 몸이 그녈을 아내로 삼기보다는 항상 멀리서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응신랑의 이러한 생각이 두 사람이 부부로 살 수 없는 운명임을 말하고 있다. (소설적인 허구의 인물인) 응신랑은 그 후 출가하여 지금도 시나위(향가) 두 편이 전해지고 있는 월명사가 되었다. 물론 이는 작가의 허구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다.

사랑에 실패한 애젊은 수로랑은 상처한 늙은 왕족인 순정공과 결혼한다. 검님께서 명하시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순정공은 흐뭇한 마음으로 말한다. 그대는 사람 세상에 태어난 검님의 꽃이요, 향기 높은 꽃님이요. 두 사람이 결혼한지도 한 해가 흘렀다.

순정공이 왕명을 받고 강릉태수로 부임해 갔다. 부임하는 길 도중에 충암 절벽에 철쭉이 있어, 수로 부인은 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오를 수 없었다. 이때 암소를 끄는 한 노인이 나타나 꽃을 바치겠다는 시나위(향가)를 지어 부르고는 헌화한다. (작가 김동리는 이 헌화의 노래를 노인이 지은 게 아니라 훗날 월명사가 지었다고 한다. 물론 사실은 아니다. 작가의 메타담론 일 뿐이다.) 이 일이 있은 후 노인은 수로 부인을 암소에 태운 후 사라져 버렸다. 김동리는 역사의 편집자, 즉 일연이 이 사실을 두고 동해의 용이 수로 부인을 바다 속으로 납치한 것으로 에둘러 표현했다고 한다.¹⁵⁾ 순정공은 수로의 귀환을 위해 산신제를 지냈다.

이들 일행이 강릉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신라 전역에 흑심한 가문이 들었다. 순정공은 왕명을 받들어 기우제를 지내게 되었다. 해갈을 위해서는 월명의 피리 소리와 수로의 춤이 어울리어야만 신명의 음감을 받을 수 있다.

월명과 수로는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헤어진 것도, 다시 만난 것도 신명의 인연과 명령이었다. 두 사람의 다시 만남이 해갈을 가져와 비를 내리게 한 것은 일종의 성적인 교접에 대한 상징과 알레고리의 언어이다. 작자는 이 대목에 이르러 슬쩍 운우지정이란 복선을 깔고 있다. 두 사람의 재회를 주선하고 기우의 제식을 수행하게 한 고승이 두 사람의 ‘미진한 회포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란 바로 그것을 암시하는 것. 요컨대 소설에서는 수로 부인이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인인 것으로 슬몃 그려진다.

김동리의 「수로 부인」은 ‘토착신(양)의 섬김과 남녀의 연애담’이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모범적인 텍스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이 『신라편』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위상

15) 거북을 부르는 의식을 연행한 두 가지 사례는 김수로와 수로 부인에 관한 기사이다. 수로(首露)는 머리를 드러내어 놓은 신성한 임금이요, 수로(水路)는 물길로 들어간 미모의 여인이다. 모두가 타의와 강요에 의한 것이다. 이름은 운명이다(Nomen est Omen), 라는 서양의 경구가 있듯이, 운명은 자율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일연은 축자적인 의미의 이름을 이미 새겨 놓았다. 운명이란 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관행적인 명명법으로 보아 김동리의 메타적 해석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겠다.

은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수로 부인의 스토리는 넓은 의미의 설화형 인물이라기보다 신화적인 캐릭터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퀀스가 다른 신비적인 이야기가 크게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도 신비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연관된 스토리텔링이 시와 소설 분야의 현대문학에서 그 동안 양산되었다. 앞으로는 야한 영화나 호화로운 뮤지컬로도 발현될 것이다.

신화에는 미토스적인 것과 로고스적인 것이 충돌하는 기호학적인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도 전자가 중심이 된 신화성과 후자가 중심이 된 반(反)신화성이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다층적인 메타커뮤니케이션의 전략들이 놓여있는 것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¹⁶⁾ 수로 부인에 관한 또 다른 현재적인 변형 텍스트로는 서정주의 시만 해도 몇 편이나 된다.

서정주의 시집 『신라초』에 실려 있는 시 가운데 신라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은 「노인헌화가」이다. 이 시는 향가의 내용을 그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해석한, 신화의 상태가 재맥락화된 시적 상상력의 정수이다. 이 시는 비교적 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한 부분을 인용해보겠다.

「붉은 바위스가에
잡은 손의 암소 놓고,
나르 아니 브끄리시면
꽃을 꺾어 드리리다」

꽃은 벼랑 위에 있거늘,

16) 『삼국유사』의 서술 체계에 있어서 신화성과 반신화성의 충돌 양상은 인용·주석·논평·찬시(讚詩) 등으로 이루어진다. 인용은 단군 신화의 문헌적인 전거를 고기(古記)라고 하는 데서 잘 드러나며, 주석은 본디 텍스트에 작은 글씨로 구분하여 표기나 발음 등의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며, 논평은 의왈(議曰), 사론왈(史論曰), 설자왈(說者曰) 등의 표현을 통해 남의 의견을 끌어들이며, 찬시는 편집자인 일연의 창작시으로써 찬양의 집약적인 어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시적 언어의 메타담론으로서 열린 형식을 지향한다.

그 높이마저 그만 잊어버렸던 것일까?
물론
여간한 높낮이도
다아 잊어버렸었다.
한없이
맑은
空氣가
요새말로 하면—그 空氣가
그들의 입과 귀와 눈을 적시면서
한없이 親한 것이 되어가는 것을
알고 또 느낄 수 있을 따름이었다.

—「노인헌화가」 부분

서정주의 시편 「노인헌화가」가 정확한 제목이 되려면, 그건 ‘향가 노인헌화가에 대한 비평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향가 「헌화가」와 일연이 기술한 『삼국유사』의 내용에 대한 일종의 메타담론이다. 이 시에 관한 김지하의 독창적인 해석¹⁷⁾에 발표자는 공감을 느끼는 입장이다. 그가 말한바, 로맨스의 세계라고 한 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신화보다는 세속화된 서사물이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의 로맨스 중에는 잘 생긴 젊은 기사가 지체가 높고 아름다운 남의 부인에게 백마에서 내려 꽃을 바치는 얘기는 있을 법한 얘깃거리다. 그런데 낫선 늙은이가 암소를 질질 끌고 와서 꽃을 바쳐도 되느냐고 묻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로맨스이다.

나의 사건이 허용된다면, 『삼국유사』 속의 이 노인은 농경신이 아닐까 한다. 이 농경신의 파트너는 신성혼(神聖婚 : holy-gamy)의 관계에 있는 암소

17) “붉은 암소는 문학적 상징체계로 육욕(肉慾)을 상징합니다. 다 늙은 노인이 왕성한 육욕인 시벨건 암소를 끌고 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사람은 상놈에다 농부에다 늙다리입니다. 암소가 아닌 극히 정결한 수로부인은 미인이고 귀족이고 유부녀입니다. 도대체 짝이 맞지가 않습니다. (……) 이를 나쁘게 보면 색정의 세계 또는 처지나 분수를 이미 아주 뛰어넘는 로맨스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세계로 끌고 가면 색정이 되는 것입니다.”(김지하, 『탈춤의 민족미학』, 실천문학사, 2004, 285면.)

일 것이다. (이 관계의 설정은 시집 『질마재 신화』의 「소 x한 놈」에서 재현되고 있다.) 농경신의 육육이 리비도의 형태로 나아가 영적인 초월의 세계인 수로부인의 아우라의 경계에 범접하고 있는 것이다. 금지하는 리비도의 세계와 두뇌 중심의 영성적인 초월성의 아우라의 세계가 하나로 안겨 들어가는 것을 두고 풍류라고 했다.¹⁸⁾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로고스적인 신화성과 미토스적인 반(反)신화성이 충돌하는 서술 양상인 일종의 메타담론이 개입되어 있다. 인용 · 주석 · 논평 · 찬시(讚詩) 중에서도 일연 자신의 찬시는 메타담론으로서 전혀 새로운 언어로의 비약을 보여주지만 그 언어가 더욱 더 강한 초월성을 향한 열망을 환기시킨다.¹⁹⁾ 마찬가지로, 서정주의 시도 일종의 찬시—혹은 비평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정주의 또 다른 시편 「수로 부인의 어법-미인을 찬양하는 신라적 어법」에서 ‘신라적 어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시적인 메타담론임을 자인하는 형국이다.

김동리의 『신라편』 본문에 중층적인 화법이 나온다. 혼구라는 허구적인 화자의등장이 그것이다. 바흐친이 말한 소설의 다성성 개념과 무관하지 않은 이것 역시 일종의 메타담론이다. 미토스적인 신화성에 대한 충돌 양상으로서의 메타커뮤니케이션의 전략 중의 하나인 것이다. 김동리의 「수로 부인」도 경어체로 씌어졌다. 혼구 스님의 설법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소설 「수로 부인」의 다성성은 지나치게 미토스적인 것을 제어하는 서술적인 장치이다. 기술하지만 마치 당대에 구술하는 듯한 착각과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이 소설의 로고스적인 보완성이 너끈히 확보되는 것이다.

수로 부인이 신라형 소재주의로서 문학성이 빼어나게 높은 이유가 있다. 그녀와 관련된 모든 화제가 신화와 비유의 형식적인 상동성에 있다는 것. 신화와 문학은 구조적으로 비유 형식을 가진다. 비유는 압축된 신화이기도 하고, 신화는 부풀려진 비유이기도 하다. 또 이 모두는 시적인 특성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 수사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요컨대는 서

18) 같은 책, 286면, 참고.

19) 송효섭, 「삼국유사의 신화성과 반신화성-미시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12, 25면.

정주의 시 「노인헌화가」가 산문적인 시, 즉 ‘화석(化石)이 된 시’라면, 김동리의 역사소설인 「수로 부인」이야말로 시적인 산문, 즉 ‘석화(石化)된 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4. 감통(感通), 본래 역사, 그리고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

김동리의 『신라편』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신라 천년의 역사 전역에 걸쳐 골고루 산재되어 있다. 소설로 쓴 신라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신라의 역사는 그 시대의 시대구분법이 따로 있었다. 지금은 실전하고 있으나 향가를 집대성한 책 이름인 『삼대목』에서도 하나의 전례가 있었듯이, 신라사는 상대·중대·하대, 즉 삼대로 나누어진다. 『신라편』에 실려 있는 열여섯 편의 단편은 삼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신라사 삼대 가운데 문화의 절정기는 중대이다. 이 중대는 물리적인 시간이 가장 짧다.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654년에서부터 혜공왕이 죽은 780년에 이르기까지의 126년의 기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삼국 통일의 염원을 이루고 중앙집권적 국가 체도를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걸쳐 있는 『신라편』의 이야기는 네 편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자면, 「원왕생가」와 「강수 선생」과 「수로 부인」과 「기파랑」이다. 이 작품군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상대와 하대의 작품인 여섯 편이 놓인다.²⁰⁾

김동리의 「원왕생가」는 본디 1955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그의 『신라편』에 실려 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비교적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 신라 상대는 기원전 57년부터 654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박혁거세왕의 개국에서부터 진덕여왕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711년간을 가리킨다. 김동리의 역사소설 『신라편』에서는 「회소곡」 등 6편이 이 시기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신라 하대는 780년에서부터 935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선덕왕의 즉위에서부터 경순왕의 폐위에 이르는 156년간을 가리킨다. 김동리의 역사소설 『신라편』에서는 「호원사기」 등 6편이 이 시기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의 제목은 향가의 제목과 같다. 『삼국유사』의 편자인 일연이 향가를 두고 ‘가끔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는 것(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이라고 말한 바 있었듯이, 향가 「원왕생가」는 초자연적인 힘을 소재로 한 것이다. 김동리의 소설 「원왕생가」 역시 소위 감통(感通)의 설화로 불리는 것이다. 감통이란, 감이수통(感而遂通), 즉 이를테면 ‘감동하여 드디어 통하는 것’이었다.²¹⁾ 요즈음 식의 개념에 대입하자면, 이것은 이를테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일종의 ‘피그말리온효과(pygmalion effect)’라고 할 수 있다.

김병욱의 「영원 회귀의 문학」은 『월간문학』 1970년 11월호에 발표된, 우리나라 초창기 신화비평을 대표하는 작가론적 비평문이다. 그는 고향이 경주인 김동리의 소설 세계에 보이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회복 의지가 영원 회귀의 개념으로 수렴된다고 보았다. ‘광덕과 엄장’의 설화를 현대화한 이 소설을 가리켜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반역사적 영원 회귀의 지향은 동리 문학의 날이며 씨이다. 한 작가의 생애를 지배하는 지리적 환경을 놓고 볼 때 그의 고향이 신라의 고도 경주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²²⁾

김동리의 소설 「원왕생가」는 향가 「원왕생가」를 복원하거나 재구성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설화를 현대화한 것이다. 『삼국유사』에 기재되어 있는 「광덕엄장조」는 소위 ‘본래의 역사(history proper)’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현)대적인 감각의 소설로 재구성한 김동리의 「원왕생가」는 이에 대한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meta-history)’인 셈이 된다. 이 경우는 본래의 역사와,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 사이에 간극이나 이질성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미시적인 읽기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21) 감통(感通)이란 것은 『삼국유사』 편목의 하나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중국 『송고승전(宋高僧傳)』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말하자면, 이 말에는 ‘신통력에 의해 일어난 기적을 감응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22) 신동욱 외,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217면.

23) 본래의 역사와 메타역사는 헤이든 화이트의 용어이다. 이에 관해선 따로 후술할 예정이다.

한 논문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일연의 「광덕엄장조」와 김동리의 「원왕생가」 간의 차이를 살펴보자.

전자가 불교적인 계도성을 강조했다면, 후자는 이를 인간적 실존성으로 변용된다. 설화에선 포교적인 측면에서 광덕의 수행 및 성불 과정이 중시되지만, 소설에서는 엄장의 인간적 세속의 번뇌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된다. 결국 김동리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광덕과 엄장의 삶을 대비한다. 그는 속세를 부정하면서 처자를 버리고 홀로 왕생하였던 광덕의 행위가 어찌 종교적인가 하고 되묻는다. 반면에 속세에서 속인으로서 속욕에 얽매어 번민하는 엄장에게서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종교적임을 발견한다.²⁴⁾

김동리의 「기과랑」은 충담사에 의해 노래(향가)로써 찬양된 화랑장 기과랑에 관한 전기적인 스토리를 패러프레이즈한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효성왕조 기사에 나와 있는 심각한 권력쟁투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 권력쟁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기과랑은 세상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지리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할 만큼 미지의, 혹은 불가사의한(mysterious)한 인물²⁵⁾로 그려진다. 그의 제자인 충담사가 그를 찬양한 노래를 지음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기과랑은 노래의 내용 외에는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인물이다. 김동리가 그린 기과랑은 작자의 상상력에 의해 본래의 역사를 뒤틀어버려 창안된 허구적인 인격의 소산이다. 이를테면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인 것이다.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는 역사가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기이한 신조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는 역사의 본질이 서사라는 역사 서술의 형식에 있다고 사실을 전제로 한 사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역사와 서사는 시작 . 이행 . 종결의 모티프로 작용하는 하나의 분명한 스펙터클을 구성 요소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 논문에 보면

24) 조은하, 「설화의 현대적 수용양상 연구—삼국유사 ‘광덕엄장조’와 김동리의 ‘원왕생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앞의 책, 12, 98-102면 참고.

25) 이러한 유형의 인물은 소설의 로망스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 김동리가 가장 로망스적인 특징의 작가인 것은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화, 슬거, 만적, 을화 등의 경우처럼 신비적인 인물형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다.

화이트는 자신의 서사이론을 가리켜 ‘역사시학(historical poetics)’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역사서술의 문학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화이트에게 역사의 문학적인 측면은 문체와 작문 스타일 등 수사적이고 수식적인 요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이트가 강조하는 역사의 문학성은 본질적인 것이다. (……) 화이트는 사실과 허구라는 잣대로 역사와 픽션을 이항 대립적으로 구분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서사의 형식을 취하는 한 역사는 불가피하게 픽션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서사형식에 대한 화이트의 분석은 이야기와 플롯 구조에서 서사와 픽션의 형식이 그대로 일치함을 잘 보여준다. 픽션의 형식을 빌지 않고 역사를 서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²⁶⁾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의 서사 양식을 무엇보다 중시한 매우 독특한 역사가이다. 그는 이처럼 픽션의 형식을 빌지 않은 역사를 서사로 만들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본래의 역사’라는 역사 고유의 영역은 따로 없다. 이것이 있다는 강고한 믿음의 환상을 폭로하면서 비판한 것의 압축적인 표현이 바로 ‘메타역사’라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과거와 관련하여 역사가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술일 뿐이다.²⁷⁾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본래의 역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에 의거한 결과이다. 이러한 유의 옛 역사 문헌 역시 객관적인 사실(史實)에 대한 설화적인 성격의 메타역사이며, 김동리의 「기파랑」 역시 역사소설의 형식에 의해 다시 씌어진, 『삼국유사』에 대한 일종의 메타역사인 것이다. 김동리에게 영향을 끼친 그의 가형 김범부(金凡父)의 저술물인 『화랑외사(花郎外史)』 역시 본디 구술적인 성격의 메타역사이었던 것이다.

5. 맺는 말, 또한 몇 가지의 남는 말

26)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론」, 『인문논총』 제51집, 2004, 51면.

27) 같은 책, 58면 참고.

신라정신은 1960년대의 문학 담론으로는 동시대에 창작과 비평의 이슈로 비교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적어도 모더니티와 전통, 참여와 순수, 현실주의와 영원주의 등으로 날과 씨로 짜여 긴장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후대의 비평적인 평판은 냉혹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신라 담론은 모순의 현상이요, 역설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신라 담론도 그러한데 하물며 신라정신에 얽힌 문학 담론은 오죽 하겠는가?

김동리의 『신라편』에 실려 있는 모든 에피소드는 로망스적인 시적 특성을 드러낸 역사소설이다.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재자가인의 이루어지지 못한, 혹은 결여된 사랑이 있다. 김동리의 단편적인 에피소드인 「수로 부인」은 ‘토착신(양)의 섬김과 남녀의 연애담’이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제식으로부터의 로망스’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모범적인 텍스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이 김동리의 『신라편』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위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김동리의 「원왕생가」는 본디 1955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이것의 작품성은 감통(感通)의 설화로 불리는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김동리의 소설 「원왕생가」는 향가 「원왕생가」를 복원하거나 재구성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설화를 현대화한 것이다. 『삼국유사』에 기재되어 있는 「광덕엄장조」는 소위 ‘본래의 역사(history proper)’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현)대적인 감각의 소설로 재구성한 김동리의 「원왕생가」는 이에 대한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meta-history)’인 셈이 된다.

김동리의 『신라편』은 일종의 픽션으로서의 메타역사이다.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은 김범부의 『화랑외사』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김동리가 그의 형이 이루어놓은 메타역사를 보충하고 보완한 유사적(遺事的)인 성격의 초(超)메타역사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이른바 『구(舊)삼국사』를 보충한 메타역사가 『삼국사기』이며, 또 이를 보충한 메타역사가 『삼국유사』이듯이, 김범부의 『화랑외사』를 보충한 메타역사야말로 김동리의 역사소설 『신라편』인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의 가형인 김범부의 독특한 풍류(風流)의 사관에 영향을 받게 된바, 역사로부터 변형된 독자적인 성격의

문학이면서도, 동시에 생명력의 근원적인 향수가 발현된 허구로서의 서사적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동리에게 경주가 자신의 실제 고향이라면, 신라는 그 자신의 선형적인 고향이다. 선형적인 고향 하면 우리는 저 고전적인 『소설의 이론』을 쓴 게오르크 루카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동리의 『신라편』은 오늘날의 젊은 비평가나 학인들에게 상징으로 조작된 순수문학, 권력지향적인 것으로 변형된 반공 문학, 고향을 이데올로기화한 정치적인 용법이 개입된 거짓된 민족 문학이라고 비판의 과녁이 될지도 모른다. 루카치에게 선형적인 고향이 타락한 근대, 훼손된 근대 이전에 존재한 옛 그리스의 신화 세계이듯이, 김동리에게 있어서도 선형적인 고향은, 물질주의에 대한 정신주의가 살아있는 공간은 다름 아니라 신라라는 이름으로 된 상상의 공동체이었던 것이다.

김동리의 소설 역시 루카치의 경우처럼 신(초월성)이 떠난 불행한 시대의 서사시이다. 그에게 있어서 타락하고 훼손된 근대는 일제 강점의 시대로부터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시대이다. 그에게는 일본 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 역사유물론, 혁명과 전쟁 등이 거대한 근대성의 괴물이었던 것이다. 그의 소설 속에 반영되고 수용된 소위 신라정신은 이 괴물과의 ‘맞짱 뜨기’나 힘겨루기에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ABSTRACT]

The novelistic acceptance of Silla-spirits and the epic style of
romantic pre-modernity

Song, Huibog

Kim Dong-ri, novelist, wrote a collection of historical novels which background is Silla. Considering several factors, that the naming of this collection is 『Kim Dong-ri's historical novels : Silla-chapter新羅篇』 would be appropriate.

The 'Silla-chapter' written by Kim Dong-ri is one which is created literally according to Silla-spirit. The poetic book, 『Silla-abstract新羅抄』 by Seo Jeong-ju, poet, is one which actualizes the spirit of Silla literally.

The 'Silla-chapter' written by Kim Dong-ri is showed well in terms of forms of native Korean religion and love stories between men and women. It is also included contents related to ancient rituals. The historical novels, the 'Silla-chapter' written by Kim Dong-ri is a kind of historical-romance.

The pinnacle of this collection is a story about madam Suro who is the most beautiful woman at the time. The one of historical-romance about Silla, 『Madam Suro水路夫人』 written by Kim Dong-ri is a typical text showing the concept of 'from ritual to romance'. This collection of historical novels illustrates 'meta-history as fiction' against so-called 'history proper'.

Key words : Kim Dong-ri,, Silla-chapter, Silla-spirits, historical novels, meta-history as fiction, history proper, romance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동리, 『김동리 역사소설 신라편』, 도서출판 지소림, 1977.
김지하, 『탈춤의 민족미학』, 실천문화사, 2004.
게오르크 루카치,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2012.
문홍술 · 박덕규 엮음, 『소설 신라열전』, 청동거울, 2001.
신동욱 외,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J. 웨스턴, 정덕애 역,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 문학과지성사, 1988.

□ 논문

- 송효섭, 「삼국유사의 신화성과 반신화성-미시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7-27면.
조은하, 「설화의 현대적 수용양상 연구-삼국유사 ‘광덕엄장조’와 김동리의 ‘원왕생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81-104면.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론」, 『인문논총』 제 51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35-75면.

이 논문은 2014년 9월 11일 접수되어 10월 11일까지 심사받아 10월 25일 게재 확정됨.